

‘롤스로이스 뺑소니 男’ 재판행...“병원과 말맞추려 현장 이탈”

약물 투약 후 차량 운전...피해자 뇌사 사고 현장 이탈...“구조 위해” 주장했으나 檢 “압수수색 통해 증거인멸 정황 포착” 마약 투약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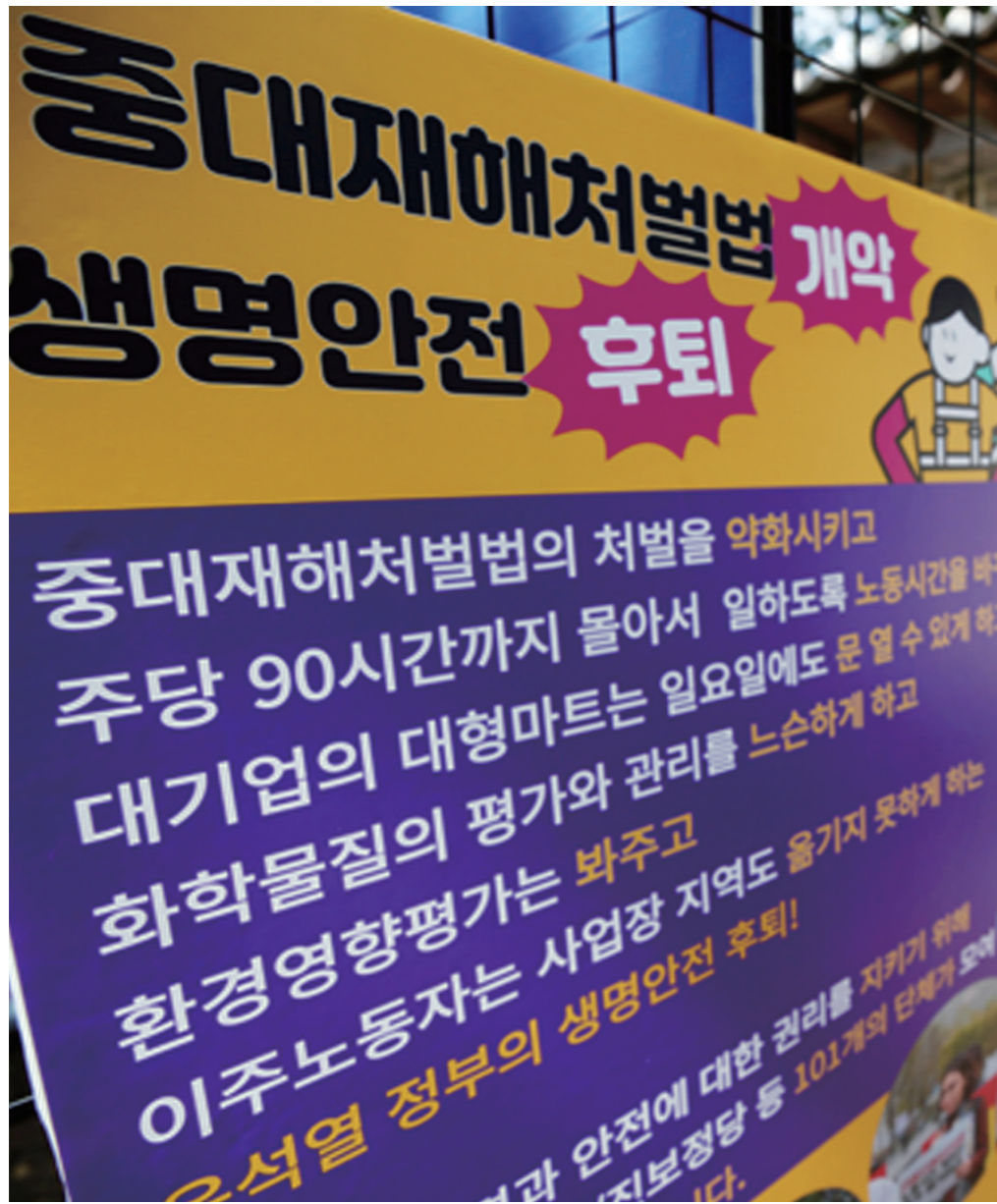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 구호를 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자신의 약물 투약 관련 병원 측과 말

맞추기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모(28)씨를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받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투약 관련 말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병원 방문 경위 및 결재내역의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주거 이전비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폭 포래모임’과의 연관성 및 자금원 관련 범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씨의 상습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나기자



공공운수노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생명안전 후퇴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페스타' 공공성 거리 행사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선전물이 게시되어 있다.

檢, ‘이태원 참사 골목’ 해밀턴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주점 임차인들 징역 8개월...법인에 벌금도

검찰이 6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호텔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인근 주점 임차인인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턴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해밀턴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턴호텔

이 세운 가벽 때문에 골목의 폭이 좁아져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해밀턴호텔 뒤쪽 ‘브론즈’의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철거했다. 그러나 열을 뒤 다시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밀턴호텔은 지난 2013년 호텔 북쪽 야외 테라스와 별관 가벽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5억여원을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2018년 2월에는 실외기 차폐용 철제 붉은 가벽을 증축해 도로 폭을 20cm가량 좁혔지만 이를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테라스 증

축과 관련한 건축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참사가 발생한 지점에 설치한 철제 가벽은 혐의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신고 의무가 있는 담장도 아니란 취지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이씨 측 변호인은 “직접 무단증축을 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증축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가벽 설치도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와 소음이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려는 공무원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위반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저희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회사경영에 있어서 더욱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9일 진행된다. 서선욱기자

역대 청년 일자리 보조금 가로챈 30대 쇼핑몰 업자 실형

고용노동부를 속여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 회사 3곳을 운

영하면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모에 거짓 신청해 53차례에 걸쳐 인건·노무비 9937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존 직원을 다른 운영 사업체에 신규 입사했다고 속이거나 허위 급여 대장을 만들어 3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지원금 2억 5200만 원을 타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년들이 회사에서 근무(주 5일·주 40시간 근무)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년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자친구 명의로 사업체를 추가 설립한 뒤 지원금을 거짓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